
85年 國內外 經濟展望

編輯者註：다음은 지난 11月 22日(木) 14:00 ~ 17:10 까지 全經聯大
會議室에서 開催된 「'85年 國內外經濟展望 심포지엄」
에서 發表된 內容입니다.

輸出環境變化와 '85年 輸出展望

發 表：嚴 永 錫 博 士(外 大 教 授)

討 論：具 雄 書 副 社 長(現 代 電 子 株)

宋 再 復 常 務 理 事(골든벨商社株)

張 石 煥 局 長(商 工 部)

司 會：曹 圭 河 常 務 理 事(全 經 聯)

世界貿易環境의 惡化 특히 保護主義의 深化에도 不拘하고 3/4 分期까지의 우리나라 輸出實績은 好調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趨勢를 維持할 것을 豫想할 때에 今年의 輸出總額은 約 285 億 달러에 達할 것으로 豫想되므로 이는 '83 年の 輸出에 比하여 16.6 %의 增大를 意味하는 것이다. 16.6 %의 輸出增大는 '82 年の 2.8 % '83 年の 11.9 %에 比하여 볼 때 훨씬 높은 伸張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今年들어서의 輸出增加 趨勢를 檢討하면 1/4 分期의 31.3 %의 增加를 高비로 하여 점차 그 增加率이 減少되고 있는 것으로, 2/4 分期에는 22.1 %, 3/4 分期에는 11 %의 增加에 그치고 있으며 4/4 分期에는 이보다 낮은 伸張率을 나타낼 것이 豫想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信用狀 來到額을 檢討하면 3/4 分期에 前年 同期對比 3.2 %의 增加를 보임으로써 前年 3/4 分期의 增加率 13.7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輸出伸張率과 信用狀 來到額 增加率의 減少는 앞으로의 輸出展望을 어둡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라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와 우리 輸出戰略에 對한 새로운 檢討가 加하여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84 年에 있어서의 輸出項目을 볼 때 船舶部門에 있어서 修理船舶을 제외하게 되면 계속 前年對比 減少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칼라 T·V 에 對한 美國으로부터의 反덤핑判定이 있는 後 10 月に 들어서 對美 칼라 T·V 輸出의 현저한 減少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考慮할 때에 '85 年の 輸出展望이 밝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85 年度 輸出展望에 영향을 미치는 國際貿易環境의 變化를 다음에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는 先進國經濟의 回復速度를 들 수 있다. 2次 오일波動以後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은 物價安定을 達成하기 위한 緊縮政策을 取하여 왔으므로 經濟回復이 빠른 速度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83 年の OECD 諸國의 經濟成長이 2.4 %를 이룩하였고 '84 年度에는 4.6 %의 成長이 豫想되고 있다. 이와같은 '84 年度の 經濟成長은 豫想外로 높다고 할 수 있겠으며 '85 年에는 經濟成長이 鈍化될 것으로 大部分의 豫測機關이 指摘하고 있다.

美國의 經濟는 緊縮財政에도 不拘하고 經濟回復이 急速度로 이루어짐에 따라 輸入增大를 誘發하여 國際收支의 惡化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美國의 輸入增大는 美國과의 交易國의 經濟를 回復시키는데 큰 役割을 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交易은 주로 先進國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므로 先進國의 계속되는 經濟成長은 우리나라 輸出이 계속해서 伸張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國際貿易環境은 經濟의 量的인 成長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므로 先進國의 金融政策이나 구체적인 貿易政策에 관한 內容을 檢討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둘째로 國際貿易環境의 主要한 要素로 나타날 것은 美國 달러價値의 方向이라 할 수 있다. '84 年 美國은 輸入激增에 依한 國際收支 惡化에도 不拘하고 달러의 強勢를 經驗한 것은 緊縮金融政策에 따른 高金利 維持에 그 原因이 있었다고 하겠다. 달러의 強勢는 美國의 主要交易國인 日本, 西獨通貨의 平價切下를 意味하는 것이며 이들 國家의 輸出競爭力을 어느정도 向上시키는 結果를 가져온 것이다.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의 貨幣는 美國에 연결되어 움직이는 傾向이 있으므로 달러의 強勢는 우리나라 원貨의 強勢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美國을 除外한 其他 先進國에 對한 輸出이 어려워지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85 年에 있어서의 달러의 強勢가 계속될 것인가는 우리나라

의 輸出展望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一般的으로 美國의 달러가 '84 年에 強勢를 이루었으므로 '85 年에는 弱勢로 變할 것이 豫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豫測은 크게 期待할 수 없을 것이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즉 美國經濟가 現在 物價安定과 더불어 雇傭量의 현저한 增大를 達成하여 近來에 보기도문 好況을 누리고 있음을 考慮할 때 지금까지 取해온 財政, 金融政策을 앞으로 갑자기 變更시킬 것으로는 豫想되지 않는다. 더우기 選舉도 끝난 지금, 緊縮金融政策은 그 強度가 弱化될 것으로는 考慮되지 않으므로 高金利와 달러強勢의 傾向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美달러의 약간의 弱勢가 나타날 可能性이 있으나 달러의 對外價値에 큰 變動이 있을 것으로는 豫想되지 않는다.

세째는 保護主義傾向에 對한 分析이라고 하겠다. '84 年은 우리나라 輸出에 保護主義가 直接的으로 큰 打擊을 준 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輸出의 약 45%가 規制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번 칼라 T·V에 對한 反덤핑判定은 우리나라 主宗輸出種目的 하나인 칼라 T·V의 輸出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이다. 先進國의 保護主義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保護主義와 그 概念이 전혀 다른 것이다. 즉 幼稚産業의 保護가 아니라 斜陽産業의 保護를 주로하는 것으로 先進國은 比較優位가 있는 尖端産業의 育成은 물론 이미 比較優位를 喪失한 斜陽産業마저 保護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政策은 國際交易의 원활한 增大를 害치는 結果를 가져온다. 美國內에서도 保護政策의 모순이 消費團體나 經濟專門家들에 의해 指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利害團體의 로비活動때문에 앞으로의 保護主義 傾向이 弱化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特히 國際收支 惡化와 輸入競爭産業에

있어서의 失業問題 때문에 保護主義 強化를 위한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EC의 경우는 美國의 保護政策에 맞서기 위한 保護主義障壁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으며 經濟回復이 豫想外로 美國과 日本에 비해 늦게 進行되고 있음에 따라 輸入需要의 增大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즉 EC에 있어서의 保護主義의 強化와 經濟의 低成長은 우리나라 商品의 輸出市場으로서 큰 期待를 걸 수 없게 되어 있다.

日本은 輸出超過國으로서 保護主義障壁을 점차 낮추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日本市場에 對한 침투에 여러가지 어려운 條件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貿易環境에 영향을 미칠 네째 事項으로는 開發途上國의 外債問題를 들 수 있다. 南美諸國을 비롯한 外債負擔이 過重한 國家들은 元利金償還을 위해 輸出을 增大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資本輸出國의 大部分은 原資財價格의 下落을 감수하면서도 大量賣出을 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놓여 있다. 外債負擔을 안고있는 國家들은 大部分 開途國으로서 輸出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對象國이 되어 있음으로 이들 國家들의 輸出促進政策은 결국 우리나라 輸出을 어렵게 하는 結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외에도 만약 負債國의 償還不能이 계속 나타날 경우에는 國際金融市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國際交易의 원활한 增大를 沮害할 要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先進國 또는 後進國의 經濟全般이 回復期에 들어가 있음을 考慮할 때 先進國에서 開途國에 對한 輸入規制를 완화하는 경우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出增大는 外債元利金償還의 어려움을 덜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外債에 허덕이는 開途國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國際金融의 正常的인 運營

을 위하여서도 開途國의 輸出이 增大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以上에서 國際貿易環境變化의 主要한 要因들을 檢討하여 보았다. 特히 韓國의 輸出展望에 그리고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豫想되는 國家는 美國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經濟는 '83 年에 3.4 %의 經濟成長을 이룩했고 '84 年에는 7.2 %의 成長을 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또한 '84 年의 輸入增加率은 約 30 %로 前에 없는 높은 成長을 기록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美國의 高金利政策, 擴大되는 國際收支赤字, 달러貨 強勢가 앞으로 어떠한 方向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世界貿易環境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一般的으로 美國經濟가 近來에 보기도문 好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取하여온 財政金融政策을 바꿀 理由가 없는 것이며 國際收支赤字의 問題는 保護主義의 強化와, 한편 産業調整을 통한 國際競爭力 強化를 통해 解決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商品의 美國市場에 對한 輸出增大는 어느정도 限界가 있을 것으로 豫測되기 때문에 美國 以外の 輸出市場開拓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84 年에는 美 달러의 強勢를 維持하여 왔으므로 '85 年에는 어느정도 弱勢로 轉換될 것이 期待되고 있으므로 이는 달러와 並行하여 움직이는 원貨의 平價切下를 意味한다. 따라서 美國을 除外한 先進國에 對한 輸出與件을 改善시키는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다.

또한 美國 以外에 特히 考慮해야 할 市場은 東南亞諸國이라고 할 수 있다. 東南아시아諸國들은 '84 年에 一般的으로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을 除外한 대부분의 國家가 높은 成長率을 이루었고 이들 經濟가 中進國으로서 앞으로 계속 活潑히 成長할 것

이 豫想되므로 이들 國家와의 交易關係를 增大시키는 方向이 우리나라 輸出展望에 큰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된다. 東南亞의 經濟는 今年보다는 약간 낮으나 꾸준한 經濟成長을 持續할 것으로 考慮되고 있으므로 東南亞市場에 對한 輸出이 내년도 우리나라 輸出展望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檢討한 國際貿易環境의 變化를 考慮할 때 '85年度 우리나라 輸出은 約 310億달러 水準에 이를 것으로 豫測되며 이는 '84年の 豫想輸出額 285億弗에 比하여 8.8%의 增加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輸出의 增加勢는 先進國의 貿易增加率과 比較하여 높은 增加率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나 現在 韓國商品의 大部分이 國際競爭力을 喪失하여 가고 있는 것을 勘案할 때 앞으로 國際競爭力이 있는 商品의 開發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勞動集約的 商品에 對하여서는 開途國으로부터의 競爭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므로 技術集約的 商品으로의 移轉을 현명하게 推進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輸出의 계속적인 增大를 위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85年 先進國經濟의 展望이 비교적 밝기 때문에 우리나라 貿易의 伸張率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나 保護主義貿易과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競爭의 強化가 韓國商品의 輸出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表 1 >

輸出 與 信用狀來到(1)

(比前年同(月)期, %)

	'83				'84			
	1/4	2/4	3/4	10月	1/4	2/4	3/4	10月
輸 出	-1.4	10.9	11.3	14.8	31.3	22.1	11.0	4.6
輸出信用狀 來 到	-0.6	3.0	13.7	22.3	22.7	16.9	3.2	6.5

資料：經濟企劃院

<表 2 >

輸出 與 信用狀來到(2)

(百萬弗, %)

	'83			'84		
	1~9月	10月	累 計	1~9月	10月	累 計
輸 出 (FOB)	17,409	2,644	20,053	20,989	2,765	23,754
(比前年同期)	(7.3)	(14.8)	(8.3)	(20.6)	(4.6)	(18.4)
輸出信用狀來到	12,810	1,411	14,221	14,685	1,502	16,186
(比前年同期)	(4.8)	(22.3)	(6.3)	(14.6)	(6.5)	(13.8)

資料：經濟企劃院

<表 3 > 主要品目別 輸出動向 (1984.1~9月^{P)})

(百萬弗, 比前年同(分期), %)

	金 額	增加率			
			1/4	2/4	3/4
輕 工 業	8,441	19.7	25.8	20.7	14.0
織 維	5,133	19.8	27.4	19.5	14.5
重 化 學	10,765	22.1	38.4	22.2	10.1
鐵 鋼	2,377	2.3	16.4	7.1	-12.1
電 子	2,358	38.3	57.8	36.4	27.3
船 舶	3,098	18.0	47.5	13.8	7.8
(修理船舶除外)	(1,046)	(-41.9)	(-11.1)	(-55.1)	(-9.2) ¹⁾

資料：經濟企劃院

註：1) 7~8月